기니비사우 소식지 2022-2 호
이근욱 조영희 선교사
e-mail: kwleesss@gmail.com
phone: +245 956 838393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선교하는 현지교회, 선교하는 현지 리더 세우기 (사도행전 1:8)

샬롬! 멀리 서부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1 **사역 소식:** 기니비사우로 오면서 소망했던 사역 중 하나가 병원 사역과 의학교육을 통한 현지 의대생과 젊은 의사 양성과 제자화였습니다. 그러나 현지 사정을 전혀 모르고 인맥이 없는 가운데 쉽지 않은 이런 사역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열어주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기서 만나게 된 어느 아르헨티나 선교사를 통해 이 나라의 유일한 아동병원에 소개를 받고 병원장과 만나 여러가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논의하여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으나 진료과장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조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이어서 이 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인 국립병원의 산부인과 과장을 만나게 되어 이 병원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의사분은 한 사립 의과대학의 학부교육 코디네이터이기도 하여서 의과대학에서 정식으로 가르치는 기회도 곧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역 (병원 사역과 의학교육 사역)을 정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니비사우 의사 면허증이 필요한데 요즘은 의사 면허증 취득을 위해 서류들의 공증번역 준비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에 의사협회에 면허증 취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면허증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기다려 봐야 하지만 기니비사우는 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나라이므로 의사면허증 취득이 비교적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편법과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여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절차를 잘 거치면 합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고 국립병원과 협력하며 현지인 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 있고 현지의대생 그리고 젊은 의사들과 소통하며 가르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것이므로 저희가 늘 바라던 병원, 의학 교육사역을 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병원과 대학교에서 무보수로 온전히 섬기는 조건으로 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전에라도 대학교에서는 비공식 교수로 외과학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희망 사역인 공중보건학을 통한 사역 역시 아직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현지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자신들의 노력보다는 외국 원조에 의존하는 것에 익숙한 이 나라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공중보건학이라는 툴 (tool)로 무슬림 동네와 토속신앙을 추앙하는 자들에게 지속가능하게 접근하여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2 **현지 상황**: 기니비사우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인데 최근에는 더 고조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노리면서 헌법 개정을 단행하려고 국회를 해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맞서 반대하는 야당들과 국회 의원들의 반응을 시민들은 긴장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서부아프리카 나라 정상들의 지지를 얻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전혀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을 나름 이용하는 모양세입니다.

3 **선교사 동정**: 제 부친께서 4 월초에 소천하셔서 저희 부부가 한국에 나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슬픔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1. 기니비사우 의사면허증 취득하는 수속이 순조롭게 되도록. 2. 병원 사역과 의학교육 사역으로 이 나라 엘리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기고 이들이 복음의 리더가 되도록. 3. 계속 불안한 이 나라 정치 상황을 안정시켜 주셔서 조용한 가운데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